6·13 지방선거 레이더 D-8

송갑석 "상무소각장을 복합커뮤니티타운으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서구를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상무소각장 부지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 조성계획은 상무소각장부터 5·18기념공원과 DJ센터까지 이르는 녹지벨트에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가족형 숙박시설, 신재생복합단지 등을 조성해 지역명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송 후보는 "상무소각장 부지를 광주 정신을 알리고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으며,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간인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현재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잉여금에 관해 주민들간 이견이 있는데, 시민중심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경자구역 지정으로 완성차공장 뒷받침"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현대차의 투자참여로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첫 결실을 맺은 것을 환영한다"며 "광주시가 추진하는 빛그린산단 자동차공장의 안정적 출범과 성공을 위해 저와 민주평화당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빛그린산단의 자동차공장 사업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임금, 노동시간, 노사관계 및 원·하청 개선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실험"이며 "실험성공을 위해 노사정 합의와 함께 빛그린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빛그린산단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자본과 첨단기술 도입, 규제완화가 용이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빛그린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완성차공장을 핵심으로 한 부품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동구, 생태 숨쉬는 곳으로 만들 것"

김성환 민주평화당 동구청장 후보는 4일 "동구의 학동·운림동을 생태문화권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동구 학운동은 국립공원인 무등산의 생태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다"며 "이를 활성화시켜 동구의 허파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운동 관련공약으로 마을공방(동구마루) 설치, 증심사 상가권역 활성화, 캠핑장 조성,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전통차거리 조성, 등을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다양한 산림·생태자산을 바탕으로, 예술자산을 기반으로 학운동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매력있는 동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대석 "건물외벽 덩굴식물 '녹색커튼사업' 추진"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는 4일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추고 시원한 도시외관을 위해 건물외벽에 덩굴식물을 심는 녹색커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고층빌딩 숲이 잇따라 세워져 대기 순환이 막혀 광주지역의 여름철 무더위도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는 또 "건물 주위에 나팔꽃, 풍선꽃, 등의 덩굴식물을 심어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실내온도를 2~3도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서구청, 주민복지센터 등 관공서 건물에 시범사업을 펼친 뒤, 이를 서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임우진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는 4일 "서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엔 동호인 대비 종목별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종합기능을 담당할 다목적체육관이 없다"며 "오는 2020년까지 치평·동천권, 금호·서창권에 각각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또 "재개발과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국공유지 등에 부지를 확보하고 사예산은 국비 공모를 통해 마련하겠다"며 "배드민턴과 테니스, 탁구 등 권역별 수요가 많은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후보는 "학교와 공공·민간 소유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설개방을 확대하면서 이용종목을 다양화하고 동네 체력단련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는 4일 "청장에 당선되면 북구 주민들께서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작은 도서관 연합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북구 부구청장 재직시 광주 최초로 운암3동에서부터 작은 도서관 사업을 시작, 현재는 관내 약 150여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150여개의 작은 도서관이 지역단위 생활권의 문화공간으로 동네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교육청 등과 연계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순천 등 작은 도서관이 활발한 선도지역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방 "중앙선관위 접수 공약 제안사항 수용"

이은방 민주평화당 북구청장 후보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우리동네 공약제안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된 '우리동네 공약제안 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말바우시장 활성화, 행정지원시스템 개선, 마을도서관 확충, 체육시설물 확대 등이다.

이 후보는 "우리동네 공약제안'은 광주시·북구청 등 행정기관이 다른 내용들도 있으나, 북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검토를 거쳐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율 "도시재생·주민자치회 활성화"

박희율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의원선거(나) 선거구 후보는 4일 백운동에 대한 발전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백운동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백운고가도로 철거와 연계한 주변생활시설 개선작업으로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푸른길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행복이 꽃피는 진다리마을 힐링교실 운영, 콩나물카페 주변 테마거리 조성과 복지취약 대상자 발굴 및 주민불편 조사단을 운영해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역브랜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전남 6·13 격전지 -(3)보성군수

김철우-하승완 '맞대결' 양상

'역량 vs 경륜' 예측불허 접전
박남일·변재면 "지역발전 온힘"

김철우

하승완

박남일

변재면

보성군수 선거는 이용부 전 군수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일찌감찌 화끈 달아 올랐다. 민주당은 민선 3선 군의원 출신인 김철우 후보를 공천했고, 이에 맞서 재선 군수 출신인 하승완 후보간 맞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전직 군수가 비리로 구속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데다 지역민들 또한 상실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간 반부패와 청렴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군정공백을 하루빨리 극복할수 있는 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인기에 힘입어 민주당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관록과 경험의 하승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예측불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김철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보성군을 연결해 지역현안을 해결을 위한 적임자라는 '역량있는 군수'를 표방하고 있다. 반면, 하승완 후보는 경험과 관록을 앞세운 '경륜있는 군수'를 내세워 경합 중이다.

김철우 후보는 전국 초연소 기초의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3선 군의원을 지내면서 확보한 인맥과 당내 지지도 역시 탄탄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민당에 입당한 이후 한번도 탈당하지 않은 의리와 뚝심을 지녔다는 평가다.

군수 후보경선에서 2번이나 탈락하는 아픔을 겪은 토박이 군수론도 내세우고 있다. 정통 민주당원으로 당 부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인맥을 쌓았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보성다운 보성'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군수 구속에 따른 군정의 비정상을 조속히 정상화해 실추된 보성의 자부심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군정공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군의원 12년의 경험과 군수선거에서 2번이나 실패하면서 보성발전 전략을 다듬어왔다"면서 "이번 선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에 맞는 힘있고 경쟁력 있는 군수가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노인건강관리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확보 ▲4개 권역별 노후 복지시설 확충 ▲득량만권 보존개발 조합설립 추진 ▲보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관광인프라 지속확충 및 보성 대표 관광거점 육성 등을 공약했다.

하승완 후보는 풍부한 군정경험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세력이 여전하고 마당발 인맥을 통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통한다.

민선 2·3기 군수 재임시절 보성발전과 보성녹차의 세계적 산업화와 문화관광 자원화 등에 주력해 큰 성과를 거뒀다. 그는 보성녹차와 벌교꼬막의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는 등 전국에 보성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도 하승완 후보가 보성녹차산업 다각화 일등공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졸 출신 현장 노동자에서 법원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의 잇따른 합격으로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 삶을 살아왔다.

하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로 보성을 만들었던 과거의 위상과 자긍심을 되살려 지역민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보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 후보는 "변방의 작은 군이 하승완 재직시절 제1회 지방혁신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142회의 수상과 표창을 받는 등 전국 1등 지방자치단체가 됐다"며 "다시 보성군을 1등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농업으로 미래성장 기반 마련 ▲스포츠 복합 관광특구 개발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시설 재정비로 신성장동력 기초 구축 ▲투명한 행정으로 지방자치 역량강화 등 '8대 핵심성장' 공약을 약속했다.

무소속 박남일 후보는 "산과 들, 호수, 바다가 있는 천혜의 보물 보성을 남다른 애향심과 더불어 추진력, 전극적인 사고, 진취적인 행동과 야무진 일처리로 지역경제를 살려 놓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변재면 후보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해 연구했고, 살면서 한시도 고향 보성을 잊은적이 없다.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더 나은 보성군을 위해 연구하고 또 준비했다"면서 "이제 보성군의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바치려고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병운 기자

"사전투표율 높아야 지지표 모인다"

광주·전남 후보들 '전략구상' 안간힘

광주·전남 여야 후보캠프들이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모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열성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로 미리 선거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후보 모두 득표율을 높이려면 사전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사전투표율을 높이려는 목표는 같지만, 후보캠프마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압승을 자신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최다 득표율을 위해, 야권 후보들은 고공행진하는 민주당 지지율이 선거에 반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투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8~9일)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미리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지난 대선에서도 전체 투표율을 올리는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광주·전남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에서 각각 33.67%, 34.04%로 전국 최고였다. 광주 전체 투표율은 82%, 전남은 79%였는데 유권자 10명 중 8명 가량이 투표했고, 이 중 3명 정도가 사전투표했다는 뜻이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지역투표율이 대선 때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전체 투표율은 60% 정도 사전투표율은 20~30%로, 많게는 유권자의 절반, 아무리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후보 캠프들은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높여 자신들의 득표율을 여기에 반영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들의 열성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소로 이끈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용섭 후보캠프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문자메시지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지자들에게 발송하고 후보광고에도 사전투표 홍보문구를 넣어 사전투표를 알리고 있다.

젊은층 표심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학생·청년층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들도 사전투표율 올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열성 지지자들이 많은 정당인만큼 사전투표율이 득표율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유세 중 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전투표 요령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지지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주·전남은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였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민주당 후보들, TV토론 참여하라"

광주시민협 "불참·회피는 오만한 행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TV토론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이 TV토론에 불참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협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지역 공중파 3사는 모두 광역단체장 초청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후보들의 불참의사 통보로 무산되거나 유력후보가 빠진 '반쪽 토론'에 그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마지막 기회마저 무산시키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를 포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작태"라며 "불과 2년 전 총선 참패의 교훈을 잊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기철 기자